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전지민, 이선화 / 발행일 2012년 7월 15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855-8(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통일한마당’ 행사를 준비하며



이사 박기업
(전주고등학교 교사)

좌과니, 중복이니 하는 등의 단어들만 넘쳐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12회째를 맞는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를 준비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마친 집행부의 노고에 먼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통일에 대한 논의도, 관심도 사라졌다. 통일이란 단어조차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다.

남북한 문제의 경직이 여러 부문에서의 퇴행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점점 통일이 해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더욱 ‘왜, 통일을 해야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뭐가 불편하냐고 말한다. 굳이 통일을 해서 우리가 왜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고 한다. 한마디로 골치 아프고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들도 많다는 것이다.

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처구니없을 뿐만 아니라 참 많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 더군다나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더욱 그렇다.

물론 적지 않은 통일비용이 들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부문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간 들어간, 또 앞으로도 하염없이 들어갈 분단비용을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라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게다가 통일비용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건설하는 생산적 비용인데 비해, 분단비용은 갈등만 유발하는 소모적 비용일 뿐이다. 한시적으로 치러야 할 통일비용이 염려되어 그보다 엄청나게 소비될 분단비용을 계속 치르는 우를 범할 것인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 전환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좌나, 우나,의 편 가르기 식의 시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싸늘한 기운을 걷어내고 기뻐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 점점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북한을 보면 안타깝다. 북한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수많은 지하자원과 사회기반 시설, 도시개발 등의 엄청난 이득을 중국으로 넘기는 것을 보고 있자니 서글퍼진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우리들의 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생들과 이번 통일한마당 행사 참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의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구하듯이 노래 부르듯이 골치 아프지 않고, “참 즐겁고 신명나게 즐기듯이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느꼈다. 여기에 통일의 답이 있지 않을까?

2012년 6월

신는순서

- 02 인사말 / 박기업
- 03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 07 통일길거리(3:3) 농구대회
- 09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군산 월명산 달밝음길”
- 10 2012년 상반기 주요 활동 보고
- 11 신입회원

통일 노래가사바퀴부르기 대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의지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행사가 또 있을까?

제 1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통일노래가사바퀴부르기대회(이하 통일노가바)가 지난 6월 2일(토) 오전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초·중·고 참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겁게 열렸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이 참가해온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가 다수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형식화 하거나 정형화되기 쉽고, 일과성, 전시성 대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오랜 평가와 우려가 있어, 올해부터는 과감히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접고, 초등도 노가바대회 중심으로 치러보자는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도했다.

초등 9팀, 중등 7팀 등 총 16개 팀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중등만 참가하다가 새로이 초등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그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초등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이 참여했고, 저마다 학년에 맞게 귀엽고 의젓한 모습으로 통일을 소리 모아 노래해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많이 받았다. 특히 많은 학부모님과 친구들이 응원을 왔으며, 학교를 응원하는 플래카드도 여러 개 준비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사회를 맡은 임동연 연대사업국장은 대회를 재미나고 윤기 있게 진행하여 찬사를 들었고, 시상식도 굳이 상에 서열을 매기기 않으려는 주최 측의 의도에 모두 호응했음인지 화기애애하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족통일상(교육감상)은 완주비봉초 유석훈 외 25명과 고창성내중 이계무 외 11명이 수상했다.[8쪽 수상 내역/수상자 명단 참조]

이제 통일노래가사바퀴부르기대회는 12년의 역사를 쌓아 온 대한민국의 대표 통일행사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 ● 전주서신초 ● ●



● ● 전주공업고 ● ●



● ● 전주전일초 ● ●



● ● 김제동초 ● ●



● ● 전주고 ● ●



● ● 전주중인초 ● ●



● ● 김제여고 ● ●



● ● 전주서곡초 ● ●



● 전주용소중 ●



● 완주비봉초 ●



● 고창성내중 ●



● 전주전일초 ●



● 성심여고 ●



● 전주중앙초 ●



● 전주공고 ●



● 김제검산초 ●

참가 학생 소감

통일 노·가·바 대회 나가기 일주일 전부터 친구들과 연습을 시작했다. 재미있는 노래와 울동을 배우면서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 중간 중간마다 힘이 빠지면 엄마들이 간식도 주시고 대회 날에는 맛있는 밥도 먹었다. 대회에서는 우리가 제일 어린 동생들이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멋진 공연을 보여주어서 조금 긴장이 되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무대에 올라갔더니 긴장도 풀리고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는 전주시장상을 받았는데 교장선생님 이랑 담임선생님께서 우리가 제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통일 노·가·바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옛날에 왜 싸워서 헤어졌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빨리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모두가 사랑받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 전주중앙초 2학년 방승연

저는 통일노가바대회에 참가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은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팀들이 통일을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은 단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경험 감사드립니다. - 전주공공 1학년 유용배

대회를 준비하며 선생님, 친구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대회에 참가하며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노가바대회 같은 행사가 활성화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의지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주공공 3학년 김현

작년에는 평화통일기자단 활동을, 올해는 작년에 이어 2년째 통일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남북 사이의 마찰이 더욱 안타깝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국내의 통일 관련 행사 수도 무척 적기에 통일한마당 노가바 대회는 나에게 꽤나 특별한 행사다. 우리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외치는 일이 솔직히 무슨 힘을 가질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희망은 생긴다. 아직 희망의 불씨는 죽지 않았다. 나 하나가 세상은 못 바꾸고 사람 하나 짚은 바꾸나갈 수 있다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코리아가 될 때까지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힘쓰며 계속 이 행사가 유지되었으면 한다. - 성심여고 2학년 송수민

드디어 오늘은 통일 노래 가사 바꾸 부르기 대회 날이다. 다른 사람이 공연을 할 때는 재미있게 봤는데 우리 차례가 되니 떨렸다. 연습할 때는 동작이 크게 크게 잘 되었는데 막상 무대에 오르면 너무 떨려서 몸집이 작아진 것 같았다. 다른 언니, 오빠, 친구들이 너무 잘한 것 같아 상을 못 받을 것 같아 우울했는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뻐했다. 통일에 대한 노래 가사를 바꾸어 연습하면서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통일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서 북한 사람들과 이웃사촌처럼 지내면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 전주중앙초 2학년 장아름

통일에 대한 생각을 노래말로 바꾸면서 평소에 조금은 무심하고 멀게 생각했던 통일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대회에서 다른 팀들과 소통하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매우 즐거웠습니다. 마치 통일축제 같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 성심여고 2학년 이세린

통일 노래가사바꾸 부르기 대회에 나가기 전에는 통일에 대해 무심했고 북한을 싫어했는데 이 대회가 나에게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통일아 어서 오렴. - 전주서곡초 5학년 송하은

통일노가바 대회에 나가기 전에는 두려웠다. 하지만 나가서 즐기니 더욱 신났다. 참여하면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싸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통일노가바에서 노래를 듣고 체험해 보니 우리 노래 말고도 다른 노래 여러 개가 합쳐져 더욱더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라도 통일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 완주비봉초 5학년 송하경

통일한마당에 가서 기쁨이 아주 컸고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나는 말이 '정말 이 노래처럼 열린 통일이 되었으면.....'이었습니다. '진짜로 통일이 된다면 노래말처럼 이산가족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겠죠?' 오늘도 이런 생각에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말처럼 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 전주서곡초 5학년 김지연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



통일노가바대회와 같은 날인 6월 2일(토) 전주비전대학 농구장에서는 통일한마당 행사의 하나로 통일길거리(3:3)농구대회가 열렸다.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평화로운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의 소중함을 몸에 익히면서, 통일의 의미와 민족 화해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에서이다.

전라북도 전지역에서 고등학생 32팀이 고루 참가하여 그동안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나인 동아리활동을 통해 연마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농구장 옆 스탠드 응원석에서는 인솔하거나 지도교사로 함께 오신 학교 선생님들, 응원 나온 친구와 가족들이 열띤 응원을 통해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특히 멀리 고창에서 온 고창고팀은, 체육 선생님이 감독을 맡아 열성적으로 지도하고, 또 여러 학생들이 함께 와서 한마음으로 응원을 펼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대회 중간엔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여 참가 선수들과 인솔/지도교사, 응원 나온 학생, 학부모들을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격려하시자 모두 즐거워하였고, 특히 전주공고팀 출전 선수들은 영광스럽다며 즉석에서 교육감님과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무척 무더웠지만 오전 9시부터 32개 팀이 8개조로 나누어 예선 리그전을 치른 뒤, 각 조 1, 2위 팀이 16강에 진출하여 오후에는 결선 토너먼트를 치렀다. 대회 결과, 우승(상장/상패와 부상(문화상품권 15만원+농구공))은 전라고 클리어 I 팀, 준우승(상장/상패와 부상(문화상품권 10만원+농구공))은 고창고 평화팀, 공동 3위(상장과 부상(문화상품권 5만원+농구공))는 이리공고 TSB, 전주고 통일팀이 수상하였고, 부안고 송곳니, 순창동계고 태양초, 전주고 KSA, 전북사대부고 성덕관팀이 8강(부상(농구공 각 1개))에 들었다.[8쪽 수상 내역/수상자 명단 참조]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인연합회에서 대회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연합회 부회장이신 우리 문화원 회원 이주환 선생님을 비롯하여 심판진, 계시원, 기록원들은 대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참가자들과 주최 측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내년을 기약하며 뒷정리를 하던 집행부 선생님은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어 고맙다는 선수들의 말에 “내년에도 다시 만나자.”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초등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

시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이 름
민족통일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완주비봉초	유석훈 외 25명 (3-1 천유나 김한 이예원 최다은, 4-1 천명희 성열찬 송하늘 양혜원 유지현 김지훈 유소망 이준오 이상진 이유진, 5-1 오슬비 유하은 송하경 남우진, 6-1 유석훈 유민규 정가은 태나영 김다인 유수미 이병관 유희락)
평화통일상 (전주대총장상)	전주서곡초	소유경 외 13명 (5-2 소유경 이유진 최윤하 라인영 송하은 김지원 전은교 설승빈 배준하 이대겸 박세현 박기운 황재호 김효성)
민족평화상(전주교대총장상)	전주중인초	정보교 외 11명 (김민지 김예성 김웅희 김유빈 김준형 박경진 박노아 박현서 서재현 이건 전민서 정보교)
민족화해상(전주시장상)	전주중앙초	이정민 외 13명 (1-1 유다현, 2-1 조예찬 윤지원 장아름 이정민 김다빈 유승진, 2-2 송인유 김도현 장성진 정우진 방승연 이윤화 이소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상	김제동초	강현석 외 7명 (5-4 조윤성, 6-1 국민주 나건호, 6-2 강현석 신중환, 6-3 김은혜 조성민, 6-4 김다인)
전북겨레하나상임대표상	김제김산초	김미르 외 9명 (6-3 김미르 한예은 유소현 조현 박혜림 황성희 송수민 변형진 이민호 서도현)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상	전주전일초	이하늘 외 3명 (4-1 김효윤 박천진 이산이, 6-3 이하늘)
	전주서신초	신수찬 외 9명 (2-1 김은서 김지희 최지안 송현진 김비단 김희원 오선애 오채원 양승진 신수찬)
	전주전일초	최아현 외 3명 (6-3 최아현 김다솜 전지현 육민서)

중등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

시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이 름
민족통일상 (전라북도교육감상)	고창성내중	이제무 외 11명 (3-1 이제무 조아린 오현석 이성민, 2-1 이혜민 이승민, 1-1 김희수 오민정 이인화 이윤숙 조재우 박세창)
평화통일상(전주대총장상)	전주공고	이요한 외 9명 (1-1 김지혜, 1-2 문은주, 1-9 조준호, 1-12 이법관, 1-11 이요한 손현욱 백혁준 유용배 김재성 최용)
민족평화상(전주교대총장상)	성심여고	이세린 외 8명 (2-1 이세린 박경은, 2-3 송수민, 1-3 조민경, 1-6 김지수 조아라 최민영 양한샘, 1-8 전승아)
민족화해상(전주시장상)	전주용소중	김소연 외 6명 (3-1 김소연 강원석, 3-4 임다혜, 3-6 최예민, 3-6 박윤화 조화원, 3-7 김태현)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상	전주공고	장민수 외 8명 (3-14 장민수 김현, 3-15 정진우, 2-5 서장원, 2-6 김상연, 2-10 박종호, 2-11 송정운, 2-13 임예준, 이지숙 선생님)
전북겨레하나상임대표상	전주고	한동진 외 5명 (2-3 한동진 김용식 최지웅 한건희 박종찬 이승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상	김제여고	박지혜 외 3명 (2-7 박지혜 서유라 이유진 박경림)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

시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팀 명	학 년	이 름
우 승	전라고	클리어 I	2,3학년	김어진 조효빈 조태영 이진재 오병석
준 우 승	고창고	평화	1,2학년	안정철 김민주 염민석 허선경 정현우
3위	전주고	통일	2학년	박형환 정다운 최석준 김정음 윤영환
	이리공고	TSB	2,3학년	장원수 유경민 전용현 이재현
8강	부안고	송곳니	2학년	이종관 유규식 김성환 이량훈
	순창동계고	태양초	2,3학년	문웅주 설선엽 김찬빈 양찬규 정우준
	전북사대부고	성덕관	3학년	하태원 엄주형 우종민 김수범
	전주고	KSA	3학년	김종석 이주성 소솔영 노기창 성진우

역사 · 문화와 함께 하는 걷기

군산 월명산 달밝음길

- 2012년 6월 9일 -

장재성 이사 (전주서중 교사)

군산 월명산은 서해 바다를 끼고 군산 시가지를 감싸고 있다. 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높지는 않지만, 100여 년 전 개항된 근대 도시 군산 시가지에서 드물게 숲을 제공하고 있다. 10여 년 전 만해도 으스스하여 사람이 잘 찾지 않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걷기 열풍이 부는 요즘 긴 숲을 따라서 걷기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주와 익산에서 출발한 우리는 아주 깔끔하게 단장된 나운초등학교에 차를 바치고 월명산에 바로 들어갔다. 월명산 길은 나운배수지에서 출발해도 좋지만 우리는 시간을 조금 줄이자는 의미에서 나운초에서 출발하였다. 입구의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 걷기의 열풍을 느낄 수 있었다. 월명산에서 장미동으로 가는 길은 중간에 청소년수련원, 수시탑 등을 만날 수 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아이와 함께 숲을 탐구하는 사람, 연인인 듯한 고딩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숲을 걷고 있었다. 군산시에서 '달밝음길'로 이름한 월명산 길은 무엇보다 서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하지만 한여름에는 나무가 많이 자라 바다를 많이 조망하려면 겨울이 더 좋을 것 같다.

수시탑에서 내려가면 해망굴이 나오는데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 한다. 일제의 수탈에 힘들어하던 조선 백성들이 계딱지같은 해망동 집에서 시내로 통하는 길이다. 타지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이 안내책자를 보면서 해망굴의 안내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해망동 어시장을 찾았다. 지금은 군산 사람들의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새벽시장은 인근도시에서도 많이 찾는다. 박대를 넣어놓은 모습, 흥정하는 모습, 손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팔려는 상인들의 모습이 정겹고 사람 사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장항 가는 배가 다니던 도선장을 지나 구 군산세관 앞에 위치한 군산근대문화박물관에 도착했다. 김중규 학예사의 안내로 군산의 개항 이후 100년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박물관 앞에서 물메기탕과 조기탕으로 식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이성당 빵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자 했으나 너무 손님이 많아 줄서는 시간이 아까워 그냥 나왔다. 그리고 다시 나운초에서 차를 가지고 전주로 왔다.

다음 걷기는 고창 문수사의 뒷산인 장성 축령산으로 정했는데 편백나무 숲이 아름답고 건강에 좋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2012년 상반기 주요 활동 보고

●● 1월

- 1/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식 참석(이미영 이사장, 정우식 원장, 총무)
책만세 교사 겨울연수 [1/3, 1/10, 1/17, 1/27, 1/31, 2/7, 2/14, 2/21, 2/28]
- 1/6 2012 사업구상 신년 집행부회의
- 1/26 신년 간부회의
- 1/30 2012년 사업계획 준비회의, 총회 준비회의

●● 2월

- 2/2 꿈장학재단 2011 년도 배움터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서 제출
(지원금 45,000,000 원 중 집행액: 44,119,740 원, 불용액: 893,660 원)
- 2/9 내부감사
- 2/10 제30차 이사회
- 2/16 청소년문화 유관 단체 1 차 집담회 / 2012 정기총회
- 2/21 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와 좌담회
- 2/25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 익산 무왕길
- 2/29 청소년문화유관단체 2 차 집담회

●● 3월

- 3/2 주5일청소년문화네트워크(가칭) 준비위원회
- 3/7 청소년문화유관단체 3 차 집담회
- 3/10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 대장금 마실길(옥정호) 마실당 모임과 결합
- 3/15 토요청소년문화네트워크 발족식
- 3/22 사)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협회에서 과학연극 〈모두 모여 흰 세상〉 공연 준비 답사

●● 4월

- 4/3 토요청소년문화네트워크-전주시 시설관리공단 협약식
- 4/4 특수분야직무연수 기관 지정 - 초등, 중등 연수 선정
- 4/7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 김제 원평에서 수류성당 길
- 4/18 중등 특수분야 직무연수 명단 도교육청 제출
- 4/20 과학연극 〈모두 모여 흰 세상〉 초청공연
-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 [2회 공연 - 2시: 초등학생 243명 / 4시: 중학생 253명]
- 4/26 중등직무연수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1강
- 4/29 그린웨이축제 체험 부스 운영 -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 5월

- 5/3 중등직무연수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2강
- 5/5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 무주 안성 칠연계곡(실크 천연염색 체험-지도: 박종관)
- 5/10 중등직무연수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3강
- 5/17 중등직무연수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4강
- 5/18 희망2012, 제 12회 통일한마당(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길거리(3:3)농구)접수 마감
- 5/22 교육정책세미나-「혁신학교와 학교 혁신」
- 5/24 중등직무연수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5강
- 5/25 2011 년도 전주교육청 감사 수감 / 통일한마당 장소 점검-전주대
- 5/31 중등직무연수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6강

- 6/1 통일한마당 장소 최종점검 및 한반도기 설치-전주대, 전주비전대
6/2 희망 2012, 제 1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대회명	『희망 2012, 제 1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일시/장소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09:30~12:30 전주대학교 JJ아트홀 통일길거리(3:3)농구대회 09:00~17:00 전주비전대학 야외농구장			
참여 인원	참가 학생	인솔/지도교사	학부모/응원·관람	총인원
	초등 102명, 중·고등 209명	92명	200명	603명
행사 진행	※ 부문별 참가 팀/학생 수(총 311명) - 초등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 : 8개 학교(9팀) 102명 - 중고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 : 6개 학교(7팀) 57명 - 통일길거리(3:3)농구대회: 23개교(32팀) 152명			

- 6/5 통일한마당 평가회의
6/7 중등직무연수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7강
6/9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 군산 월명산 달밝음길
6/14 중등직무연수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8강
6/21 중등직무연수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9강
6/22 통일한마당 정산서 제출
6/28 중등직무연수 제10강/수료식

* 그밖에 집행부 회의(매주)/간부회의, 청소년교육연구소 교육정책연구 교사모임 '아르케' 모임, 교사 독서토론 동아리 (중등-책만세, 초등-읽고살고) 모임, 통일한마당 준비회의 등 각종 사업 준비회의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가졌고, 소식지를 월 1회 발간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님을 환영합니다.

신입 회원 (가입일 순)

고유곤(김제 청하중 교사)
강성래(군산 대야초 교사)
박순례(정읍 소성중 교사)
이형미(정읍 서영여고 교사)
김영희(전주 효문여중 교사)

중등 직무연수 수료식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연수」

알찬 프로그램과 강사진 구성으로 호평 받은
문화원 직무연수가 6월 28일,
마지막 강좌를 끝으로 마침내 종강을 하고,
조출한 수료식을 가졌다.
열정적으로 연수에 임한 교사들은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원이 계속 좋은 연수를 개설해주기를
희망하며 작별했다.

감정코칭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 직무연수

우리 문화원에서 개설한 이번 직무연수는
교사-학생 간 건강한 소통 증진과
교사의 행복한 삶 찾기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연수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의 관계에서
소통의 통로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일시: 2012년 7월 30일(월) ~ 8월 3일(금) (5일간, 매일 6시간 - 총 30시간)
장소: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 대상: 초등교원 및 전문직 40명

감정코칭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 직무연수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시 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7.30(월)	영혼을 깨우는 글쓰기 (보리출판사 윤구병)		마음공부란? (대전중리초 교사 최진)		행복한 교사의 삶과 철학 (남원초 교사 김동오)	
7.31(화)	마음공부를 통한 학급 운영 (대전중리초 교사 최진)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진솔성) (안양여상 교사 김해곤)		
8.1(수)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진솔성) (안양여상 교사 김해곤)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공감) (고창심원중 교사 이미진)		
8.2(목)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분노 다루기) (이리공고 교사 고영희)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감사, 칭찬) (수원상촌초 교사 설현정)		
8.3(금)	교실 심리 (광주양지병원 정신과 의사 김석재)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김포운유초 교사 이혜미)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 름				회 원 (), 후원회원 ()
직 업 / 직 장				담당 업무 (교과)
직 장 전 화				집 전 화
손 전 화				
E - mail 주소				
직 장 주 소				
자 택 주 소				
예 금 주				주 민 등 록 번 호
월 이 체 액	회비 1만원 + 후원금() 만원	CMS 자동이체 여부	예(), 아니오()	
계 좌 번 호	(은행명)			

2 0 년 월 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063) 227-0650